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 기능변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홍택규
(한림대학교)

1. 들어가며: 간접증거성이란?

증거성이란, 그 정의를 아주 간단히 요약한다면, 결국 Мельчук(1998: 199)의 제안대로 ‘화자가 특정 사실 Fⁿ을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가를 지적해주는 범주, 혹은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소들로 이루어진 범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증거성은 크게 ‘의미적으로 무표적인’ 직접증거성(experientive; 직접경험의 증거성)과 ‘의미적으로 유표적인’ 간접증거성의 두 하위범주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는데,¹⁾ 여기에서 직접증거성이라 함은, 그간의 필자의 연구(홍택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353-A00139).

- 1) 물론 여기에서 ‘의미적 무표성/유표성’의 기준은 몇 가지 유보를 전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를테면, 이미 ‘의미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언어별로 직접증거성과 간접증거성의 경계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의미론적 무표성/유표성’의 기준이 ‘형태론적 무표성/유표성’의 기준(혹은 ‘화용론적 무표성/유표성’의 기준)과 함께 가지 않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화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청각 등의 기관을 통해 직접 경험했을 때 사용하게 되는 한국어 직접경험증거성의 표지 {-더-}는 형태론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충분히 유표적인 표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있더-}와 같이 {-더-}를 포함

규 2008; 2010 등)에서도 자주 언급된 바 있지만, 화자가 주어진 정보를 어떤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얻게 되었거나 지각하게 되었음을 지칭하는 범주로, 예컨대 화자가 해당 정보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들어서 알게 되었음을 신호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간접증거성은 화자가 해당 정보를 이른바 매개적인(опосредованный) 방식을 통해 -이러테면, 어떤 중간자적 개입을 통해- 얻게 되었음을 지칭하는 범주로, 여기에는 이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얻었음을 신호하는 경우(‘인용증거성’; citative, renarrative, quotative), 관찰된 사실에 대한 화자 자신의 사고작용, 깨달음, 분석 등을 통해 얻었음을 신호하는 경우(‘사실추론증거성’; inferentive, conclusive), 화자 자신에게 존재하는 지식(체계)과, 이에 대한 논리적 추론과정을 토대로 얻었음을 신호하는 경우(‘가설추론증거성; presumptive) 등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²⁾

하고 있음에도 간접증거성의 의미(보다 정확히는, 사실추론증거성의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역설적인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무표성/유표성’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범언어적 일반성을 추출할 수 있으며(이러테면, ‘목격’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직접증거성에 해당한다), 또 증거성의 하위 범주들을 유형화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 2) 참고로, 여기에서 간접증거성의 분류에 대한 통상적인 입장과 다소 상이한 Храковский (2007)의 분류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Храковский(2007: 601-604)는 청각의 도움으로 얻어진 정보(auditive)는 기본적으로 모두 간접증거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테면, 청각을 통해 지각된 정보(다시 말해, ‘말로 된 정보’)는 본질상 이미 그 자체에 인코딩, 디코딩 등과 같은 해석의 계기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로 이미 제2차신호적(второсигнальный) 정보에 해당하며, 그런 까닭에 설령 화자 자신이 직접 들은 정보라 할지라도, 해석의 계기가 작용하지 않는 시각적 정보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Храковский는 심지어 ‘청각을 통해 본인 스스로 지각한 정보’와 ‘타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정보’마저 그다지 강하게 구분하지 않는다. 어차피 양자 모두 청각의 도움으로 얻게 된 정보이며, 그 결과 둘 다 그 자체로는 획득된 정보의 진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서이다. 다시 말해, 화자가 청각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차차 논의되겠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증거성과 인식양상을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가지지 않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범주로 구별하려는 Храковский의 기본 입장과 잘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청각을 통한 정보의 획득은 기본적으로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가정 자체에 이미 증거성의 기준과 인식양상의 기준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유형론적으로 보다 일반적인 견해는 ‘직접경험의 증거성’이라는 범주 하에 시각, 청각, 촉각 등과 같은 여러 지각적 감각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시각이 직접경험을 대변하는 대표적

그럼 비교적 위와 유사한 증거성의 하위의미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불가리아어를 살펴봄으로써, 증거성에 대한 예시적인 상을 가져보도록 하자. 사실 불가리아어는 그 자체로도 매우 복잡한 증거성체계를 가지고 있어, 연구자들마다, 또 그 목적에 따라 분류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Храковский(2007)의 견해를 따라가 보기로 한다.³⁾ Храковский(2007: 604-5)가 지적하고 있듯이, 아오리스트형이 사용된 다음의 예문 (1)은 화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경험했음을 신호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직접증거성의 경우에, *-л-* 분사형이 사용된 예문 (2)는 인용증거성의 경우에, *-л-* 분사형과 함께 연사 *e*가 사용된 예문 (3) 사실추론증거성(inferentive)의 경우에 해당한다.

- (1) Иван замина. ‘이반 떠났어’
- (2) Иван заминал. ‘이반 떠났대’
- (3) Иван е¹ заминал². ‘이반 떠났더라’

전술된 분류법에 의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의 예문 (1)은 직접증거성에, (2)와 (3)은 간접증거성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3)이 사실추론증거성의 경우에 해당한다 함은, 화자가 이반이 떠나는 사건 그 자체를 본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의 결과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어떤 정황을 보고 해당 사건을 추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위의 (3)이 발화되기 바로 전 어떤 시점에는 여행을 떠나려던 이반의 가방이 복도에 놓여있었는데, 발화시점에는 복도에

지각, 감각으로 이해된다. 결국 증거성에서 직접성이란, 경험, 지각이 얼마나 다른 경로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 역시 이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분류법에 준해 논지가 전개될 것이다.

- 3) 참고로, 홍택규(2008; 2010)에서는 불가리아어 증거성을 직접서법(Indicative mood)과 간접서법(Oblique mood) 사이의 대립이라는 2분법적 체계로 이해했던 Kehayov(2002)의 견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었지만, Friedman(2003)처럼 불가리아어 증거성 체계를 ‘확신법(Confirmative) 과거 vs. 무표적 과거 vs. 비확신법(Nonconfirmative) 과거’의 3원대립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도 있다(물론 이 3분법 내의 ‘무표적 과거’도 2원적 체계에 준해 이해하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각각 직접서법과 간접서법의 경우에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Friedman류의 3분법 역시 2분법적 이해와 큰 차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가방이 놓여있지 않을 것을 보고, ‘(마침내) 이반이 떠났구나’라고 추론하는 경우에 발화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가리아어 화자는 다음의 예문 (4)와 같이 -л- 분사형이 사용된 (2) 유형의 발화에 бил을 첨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즉, 인용증거성의 의미를 표현하면서도—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가 표현된다 (Храковский 2007: 611).

(4) Иван бил¹ заминал². ‘이반이 떠났다는 것처럼 말하더라’ /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Иван якобы уехал’

다시 말해, 예문 (4)의 ‘과생모어’라 할 수 있는 문장은 추론증거성을 표현하는 (3)과 같은 문장이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인용증거성을 표현하는 (2)와 같은 문장이었다는 것이데, 사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문 (4)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꽤 흥미로운 데이터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 이 예는 한 발화 내에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epistemic modality)의 계기가 충분히 동시에 실현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처럼 증거성이란 그 자체로는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는가의 문제이지, 화자가 그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아님에도, 실제 언어현실의 층위에서는 후자와 같은 인식양상의 계기와도 함께 겹쳐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간접증거성 vs. 인식양상

인식양상은 Храковский(2007: 609)의 정식화대로 ‘주어진 사실 Fⁿ의 그럴듯함(вероятность; 있을법함)의 정도에 대한 화자 자신의 평가’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증거성과 인식양상은 (명제부에 표현된 주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도, 또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서로 보완하는, 상호독립적인 독자적 의미범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증거

성과 인식양상은 Plungian(2001)의 제안대로, 실제 실현된 언어표지의 층위에서는(혹은 언어체계의 층위에서는) 양자가 서로 겹쳐 발생할 수 있지만, 원론적인 가치의 측면에서는 각각 ‘해당 정보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와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 평가의 정도’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를 가진 의미범주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 두 벡터는 연속체적 일직선상에 놓이지는 않지만, 환경이 갖춰지면 언어적 실현의 층위에서는 서로 겹쳐지게 되는 교집합의 영역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원론적 가치의 층위’와 이것이 실현된 ‘언어적 표지의 층위’를 방법론적으로 나눈다면, 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쉽게, 자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들이 그리 간단했던 것만은 아니다. 양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입장들의 스펙트럼은 꽤 넓어, 예컨대, 증거성을 인식양상의 여러 측면 중의 하나로, 즉 부분집합으로 이해하려는 입장(Givon 1982; Яковлева 1994 등), 증거성과 인식양상이 함께 보다 상위의 어떤 일반적인 범주(hypercategory)를 이룸으로써 양자가 부분적으로 중첩된다(overlapped)고 이해하려는 입장(Ницолова 2003),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증거성과 인식양상을 기본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범주로 이해하려는 입장(Храковский 2007) 등이 제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de Naan(2005)과 같이 증거성을 아예 양상적 범주와는 전혀 연관시키지 않고, 마치 시제와 유사하게 동사의 직시적(deictic)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견해도 등장한 바 있다.

기실 위의 입장들이 각각 그 자체로 나름의 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견해를 보완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첫 번째 입장의 경우에는 증거성의 모든 하위미미들이 과연 결국에는 ‘전달되는 사실의 그럴듯함, 혹은 신뢰성(достоверность)’의 기준으로 환

4) 그리고 이러한 Ницолова(2003)와 같은 견해에서 증거성과 인식양상을 모두 포괄하는, 보다 상위의 하이퍼범주는 ‘전달되는 정보의 화자에 의한 특성화’(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говорящим сообщаемой информации)’로 정의된다. 즉, 다시 말해, 증거성과 인식양상은 무언가 화자의 입장에서 전달되고 있는 정보의 특성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관되어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원되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답해야 하며, 두 번째 입장의 경우에는 ‘전달되는 정보의 화자에 의한 특성화’라는 하이퍼범주 설정의 막연함, 애매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범주적, 논리적 연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해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언어표지 내에 증거성의 의미와 인식양상의 의미가 함께 표현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답해야 하며, 마지막 네 번째 입장의 경우에는 (증거성이 무언가 화자와 그에 의해 묘사되는 행위 사이의 관계를 표지(mark)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역시 직시(deixis) 개념, 전환사(shifters)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데서 오는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위의 세 번째 입장과 마찬가지로 왜 하필 하나의 언어표지 내에 증거성의 의미와 인식양상의 의미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결국 위와 같은 난점들을 해결하는 (혹은 우회하는) 유력한 방법은 앞에서도 제안했던 바와 같이 이른바 ‘(미실현된) 원론적 가치의 층위’와 ‘(실현된) 언어적 표지의 층위’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기존의 견해들이 위와 같이 꽤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것도 상당 부분 이 두 층위가 존재함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층위에만 초점을 맞춘 탓도 크다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관계를 중첩으로 이해하는 위의 두 번째 입장은 실현된 언어표지적 층위의 논리에 보다 충실했다면, 양범주 사이의 관계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세 번째 입장은 가치 층위의 논리에 충실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어쨌든 이처럼 ‘가치의 층위’와 ‘표지의 층위’를 방법론적으로 잘 구분하고, 또 양자 사이의 연관관계를 잘 설정할 때만,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두 범주 사이의 다양한 기능변이의 과정 역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를 예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동일한 예문에 대한 Яковлева(1994)와 Храковский(2007) 설명의 미묘한 차이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5) Иван пришёл. ‘이반이 도착했어요’

(6) Иван, наверно/кажется, пришёл. ‘아마 (이때쯤이면) 이반이 도착했을 거예요’ / ‘(소리를 들어보니) 이반이 도착한 것 같애’

Яковлева(1994: 212)는 위의 예문의 차이를 ‘정보의 충분함(полнота)’이라는 변수를 기준으로 접근한다. 이를테면, 예문 (5)는 이른바 객관적 인식(양상)적 묘사에 해당해 정보가 충분할 시에 사용되는 반면, (6)은 주관적 인식(양상)의 경우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까닭에, 화자 자신의 개성, 의지, 바람, 확신 등의 변수가 개입된 경우에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Яковлева 스스로도 위에서 ‘정보가 충분하다’는 것은 ‘화자가 이반이 도착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해당 인물이 이반이라고 그 정체를 확인할(identify) 수 있는’ 상황적 조건에 기인한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적 프레임이 일차적으로 인식양상적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의 충분함’이라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여기에는 증거성을 인식양상의 하위범주로 이해하고자 하는 Яковлева의 방법론적 기본가정이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Храковский(2007)는 동일한 예문을 인용하면서도 미세하지만 다소 상이한 접근을 보인다. Храковский(2007: 610)는 시각의 도움으로 얻어진 정보는 항상 충분한(полный) 객관적인 정보(즉, 100퍼센트 확실한 정보)여서, 이반이 도착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화자는 (5)번 유형의 발화만 할 뿐이지, (6)번 유형의 발화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례상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 이유는 후자 유형의 발화를 사용하게 되면 이반이 도착하는 것을 화자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 부정되게 되며, 또한 그 결과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100퍼센트 믿을 만한 것으로, 확실한(достоверный)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마저 부정돼버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이처럼 매우 간략한 논지전개의 과정만 보더라도 Храковский가 Яковлева와는 달리 (인식양상과 관련된) ‘정보의 충분함’의 기준보다는, 목격과 같은 ‘직접경험 증거성’의 기준을 더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는데,⁵⁾

5) 물론, 이러한 Храковский(2007)의 설명 역시 충분하지 않음은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위와 같은 Храковский의 설명이 그 자체로 타인으로부터 해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위와 같이 일견 증거성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지 않을 것 같은 평범한 예문의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얼마나 믿을만한가와 같은 인식양상의 변수와는 별개로,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었는가와 같은 증거성의 변수가 늘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위의 예 (5)만 놓고 볼 때는 일견 후자의 기준이 그리 특별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겠지만, 사실 예문 (6)의 삽입어 *наверно*와 *кажется*의 선택의 차이만 보더라도 간접증거성의 요인이 결정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a) Кажется, Иван пришёл. ‘(소리를 들어보니) 이반이 도착한 것 같애’

(6-b) Наверно, Иван пришёл. ‘아마 (이때쯤이면) 이반이 도착했을 거예요’

위의 예들은 어휘부 및 그 결합관계적(*syntagmatic*) 구성과 화용적 맥락이 최소화되어(*minimalized*) 있어, 자체로는 삽입어 선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6-a)는 이반의 평소 발걸음 동작이나 그 소리 등을 근거로 어떤 인물의 등장을 이반이 도착한 거겠구나 라고 추론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당 정보를 들었을 때도 (5)번 유형의 문장을 발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듣고 예문 (5) 유형의 문장을 발화하게 되는 경우(즉, 이때 화자는 해당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본인 스스로는 충분히 믿을만한 정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성의 기준보다는 ‘정보의 충분함’, ‘해당 사실의 그럴듯함의 정도’ 등과 같은 인식양상의 기준이 더 우선적인 것으로, 더 본질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뒤에서 더 자세히 다뤄지겠지만, 하나의 언어적 단위(이를테면, (5)와 같은 발화) 내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적 가치들(여기서는 증거성과 인식양상의 가치들)이 충분히 함께 병존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5)를 일례로 든다면, 이 예문은 화자가 해당 사건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알게 되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혹은 화자가 해당 사건의 진위성을 충분히 확신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혹은 아예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6-b)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경험의 계기는 부족하지만 화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등을 사용하여 —‘이른테면, 이반이 전화로 한 시간 전쯤에 출발한다고 했으니, 이때쯤이면 도착했을 거야’와 같은 식으로— 추론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다시 말해, 위에서 *кажется*와 *наверно*는 화자가 해당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었는지를 신호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는 바로 각각 1장에서 언급되었던 ‘사실추론증거성(inferentive)’와 ‘가설추론증거성(presumptive)’의 의미에 그대로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해당 정보가 경험적으로 관찰된 사실에 대한 추론을 바탕으로 얻어진 것임이 신호되고 있는 반면, 후자에서는 이미 화자 자신에게 존재하는 지식의 분석과정을 토대로 얻어진 정보임이 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кажется* 유형 삽입어와 *наверно* 유형 삽입어의 용법의 차이는 4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 Храковский(2007)와의 비교

그럼 이제 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관계에 대해 비교적 필자의 견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Храковский(2007)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이 두 입장의 차이를 면밀히 검토해봄으로써, 인식양상과 간접증거성 범주에 대한 이해를 더해보자. Храковский(2007: 608)는 ‘의미의 층위 자체’와 이 ‘의미가 형식적으로 재현되는 층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해,⁶⁾ 하나의 문법적 표지가 하나의 의미만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의미적으로 서로 중첩되지 않는) 두세 가지의 다른 문법적 의미들을 누적적으로(cumulatively) 표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술했듯이, 증거성과 인식양상을 완전히 별개의 범주로 이해하려는 Храковский 유의 주장에서는 하나의 언어적 표지 내에 증거성적 의미성분과 인식양상적 의미성분이 함께 표현되는 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는

6) Храковский에 따르면, 이때의 ‘의미’는 그것이 문법적인 것이든, 아니면 의미-화용적인 것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교적 꽤 포괄적인 층위의 의미를 지칭한다.

데, 이를 Храковский는 두 의미성분이 누적적으로 표현된 경우라고 간주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논의되고 있는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의미상 서로 중첩되지는 않지만, 하나의 문법적 표지에 의해 누적적으로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경우라는 것이다.

반면에,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이 추상적인 가치(value)관계의 측면에서는 그 기능적 벡터의 방향을 각각 ↗와 ↘와 같이 가지고 있는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의미범주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가치관계가 실현되는 언어적 표지의 층위에서는 이 두 범주가 겹쳐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위의 Храковский의 첫 번째 가정은 꽤 받아들일 만하더라도,⁷⁾ 실제적인 언어적 실현의 양상이 중첩(overlapping)이 아니라 누적(cumulation)일 수 있다는 두 번째 가정은 매우 인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굳이 왜 하필이면 이러한 누적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의 필요성은 차치하더라도, 이처럼 누적이 양상처럼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 두 범주가 어찌든 언어표지상으로는 의미적으로 겹쳐 실현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Храковский(2007: 613)는 자신의 논지를 강화할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Тerechuan어와 Wintu어의 예를 토대로, ‘언어적 체계의 층위’에서는 추론증거성이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의 접점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Plungian(2001)의 주장을 비판한다.⁸⁾

(7) vahii	vak	kugi	(Terechuan)
COMPLETIVE:ухал	EV	AFFIRMATIVE	
‘Значит, должно быть, он уехал’			

7) 물론 이 경우에도 필자가 ‘가치층위’를 보다 추상적인, 어떤 원론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층위로서 설정하는 것과는 달리, Храковский는 ‘의미층위’를 (비교적 포괄적이긴 하지만) 단지 어떤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보다 구체적인 층위로서 이해한다는 차이점은 남는다.

8) 전술했듯이, Plungian(2001)에게 ‘언어적 체계의 층위’라는 술어는 ‘가치의 층위’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필자의 ‘언어적 표지의 층위’에 그대로 상응하는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다.

(8) heke maan haraakireem (Wintu)
 куда.то восклицание идти:COMPLETIVE:EV:DUBITATIVE
 ‘Он, видимо, куда-то ушёл’ (я его не вижу)

즉, Храковский는, 만약 Plungian의 주장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추론증거성이 표현된 발화는 해당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를 전달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실제로 위와 같은 발화는 (설령 객관적인 가능성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화자 개인적으로는 100퍼센트 확신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굳이 추론증거성을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의 접점지대에 존재하는 범주로 상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위의 예들은 화자 개인적으로는 100퍼센트 확신할 때 사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그냥 간접증거성의 기준만으로도 충분하지 굳이 인식양상의 기준을 끌어들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Храковский는 위의 러시아어 번역에 *должно быть, видимо* 등이 사용된 것이 애초의 Terechuan어와 Wintu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린 것이었다면 (마치 Plungian 주장의 논리적 귀결처럼) 해당 정보를 화자가 나름 덜 믿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 원어들에서는 화자가 —비록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더라도— 어떤 사건이 과거에 발생했었다는 데,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어떤 유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해당 그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데 실질적으로 전혀 의심치 않고 있음이 표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물론 Храковский가 이렇게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에는 애초의 원어들에서는 위와 같은 유형의 삽입어들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었다는 점도 포함된다). 다시 말해, 화자가 동등한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사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어느 하나의 가능성만이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까닭에, 화자의 추론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믿을만한 것이라고, 즉, (Храковский의 표현을 그대로 쓴다면) ‘주관적으로는 100퍼센트 믿을만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Храковский는 위의 (7), (8)과 같은 예문을 추론증거성의 가장 원형적인 예로 간주하고 있는데, 아울러 한국어 {-있더-}의 사실추론증거성적 (inferentive) 의미와 관련해 필자(Хонг 2004: 380)가 제시했었던 아래의 예문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9) chelswu rap mek-ess-te-la (Korean)
 Чёльсу обед есть-ПРОШ-ЭВИД:НАБ-ФИН
 ‘Чёльсу (похоже/по всей вероятности) пообедал.’

즉, 위의 예는 식탁 위에 -빈 밥그릇이 놓여 있다든지 하여- 누군가가 식사를 한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시간에 밥을 먹을 사람은 철수밖에 없는 관계로, 혹은 그 시간에 미리 차려놓은 밥을 철수가 먹기로 미리 약속을 했었다든지 하여- (실제 철수가 밥 먹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지만) 철수가 밥을 먹었다고 추론하는 경우에 사용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상의 뉘앙스 역시 Храковский가 생각하는 추론증거성의 원형적 사례에 그대로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실추론증거성과 관련된, 위의 예들의 의미적 뉘앙스에 대한 Храковский의 설명은 그 자체로 충분히 타당하지만, 이것이 바로 ‘언어적 체계의 층위’에서 추론증거성이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의 점점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Plungian(2001)의 주장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Plungian의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필자의 주장에 대한) 반대증거가 될 수는 없다. 우선 Храковский는 추론증거성이 간접증거성의 인식양상의 점점지대에 있다는 Plungian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가치층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증거성과 인식양상의 범주적 가치가 실현된 ‘언어적 체계의 층위’(혹은, 우리식으로는 ‘언어적 표지의 층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층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Plungian 역시 증거성과 인식양상이 서로 독립적인 별개의 범주를 이룬다는 데 동의할 터인데, 이때는 사실 Храковский 비판의 타겟이 사라지게 돼버린다.

둘째로, Храковский는 인식양상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어, 이

른바 ‘객관적 인식양상’과 같은 술어를 인정하려들지 않지만, 어떤 상황을 충분히 믿을만한 객관적인 정황으로 파악하는 것도 기실 인식양상의 범주와 관련된 사항 중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위의 Яковлева(1994)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Храковский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쓴 ‘주관적으로는 100퍼센트 믿을만하다’는 것 역시 이미 그 자체로 인식양상이 개입된 현상이다.

셋째, Храковский는 또한 그의 ‘의미충위’보다 훨씬 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가치충위’ 설정의 함의를 간과하고 있는데,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표지의 유무 자체에 너무 매몰돼버리는 한계를 보인다. 이를테면, 위의 예문 (7), (8)의 번역에 *должно быть, видимо* 등이 사용되는 게 합당한가의 여부를 자신의 주된 논거로 삼고 있는데, 다음 4장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이러한 삽입어의 사용에 이미 (인식양상의 가치 이외에) 간접증거성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까닭에, 삽입어의 유무 자체가 매우 유력한 논거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다시 말해, Храковский는 *должно быть, видимо*와 같은 삽입어가 아예 애초부터 인식양상적 의미(혹은, 필자의 용어로는 ‘가치’)만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언하자면, Храковский는 반면에 보다 높은 가능성을 전달하는 *определённо, как я вижу* 등과 같은 삽입어구는 추론증거성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때도 다음과 같이 가급적 삽입어구적 표지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추론증거성의 원형적 사례로서 취급하려는 경향은 발견되는데, 어쨌든 추론증거성을 가능한 한 (주관적으로나마) 100% 믿을만한 추론이 가능한 경우로 간주하려는, 또 그럼으로써 인식양상의 범주로부터 확실히 분리시키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10) Ночью (определенно/как я вижу) шёл дождь. ‘간밤에 비가 왔었네’

위의 발화는 실제 비가 오던 상황을 목격했던 경우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길 위에서 느껴지는 촉촉함의 감촉 등과 같이 간밤에 비가 왔던 사건의 흔적만을 보고 추론하는 경우에 사용되므로, 사실추론증거성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정황이 이전의 예들에 사용된 *видимо*와 같은 삽입어가 간접증거성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반감시키는 것은 아니다. *видимо* 유의 삽입어들은 단지 화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확신을 덜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장면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 흔적을 봤음을 신호하기 위한 간접증거성적 동인에 의해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Храковский에게는 삽입어의 유무가 마치 추론증거성 구문 판단의 주된 변수처럼 되어 버렸지만(살펴보았듯이, Храковский는 삽입어가 있는 발화는 가급적 추론증거성 구문으로 판정하려 들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사항은 ‘원론적 가치층위’에서는 서로 다른 기능적 벡터를 가진 별도의 두 의미범주가 ‘실제적인 언어적 체계의 층위’에서는 중첩의 영역, 즉 교집합을 가질 수 있으며(따라서 하나의 언어적 표지 내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미적 가치들이 동시에 표현될 수 있으며), 또한 바로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흔히 단지 인식양상의 표지로만 이해되어왔던 언어적 단위들이 아울러 부가적으로 —즉, 비특정화된(non-specialized) 방식으로— 추론증거성의 의미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앞에 제시된 예문 (6-a)와 (6-b)의 *наверно*와 *кажется*는 인식양상의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도, 화자가 어떤 경로 통해 해당 정보를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신호하는 증거성의 의미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예문 (7)과 (8)의 러시아어 번역에 사용된 *должно быть*와 *видимо* 역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4. 인식양상 → 추론증거성: *кажется* 유형 vs. *наверно* 유형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원론적 가치의 층위’와 ‘언어적 표지의 층위’ 사이의 관계를 잘 정립하여 접근할 때만, 언어적 표지들 사이의 비특정화된 기능변이의 과정도 온전히 설명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지금까지 통상 ‘인식양상의 표지’로만 간주되었던 언어적 단위들이 실상은 ‘추론증거성의 표지’로도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인식양상의 표지 → 추론증거성의 표지’로의 기능변이는 이미 간략하게나마 Плунгян(2000)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예컨대, Плунгян(2000: 321-325)은 인식양상을 표현하는 삽입어 *похоже*와 *должно быть*가 화용적 환경이 갖춰질 경우, 다음과 같이 사실추론증거성(inferentive)과 가설추론증거성(presumptive)을 표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1-a) Здесь, похоже, кто-то побывал. ‘여기 누군가 묵었었네(묵었던 것 같애)’

(11-b) Саша, похоже, пообедал. ‘Саша 밥 먹었네(먹은 것 같애)’

(12) Дети, должно быть, уже дома. ‘(지금쯤이면) 애들은 이미 집에 도착했을 거야’

예컨대, 예문 (11)의 *похоже*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흔적을 보고 추론할 때 사용된다면, 예문 (12)의 *должно быть*는 이를테면 화자가 아이들이 1시 쯤에 유치원버스를 타고 집으로 떠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 발화시점인 2시가 되었을 때는 통상의 일의 진행을 볼 때는 이미 집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혹은 어떤 기준을 통해 일군의 인식양상의 표지들은 사실추론증거성의 표지로, 또 일군의 인식양상의 표지들은 가설추론증거성의 표지로 기능하게 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테면, 위의 예문 (6-a)와 (6-b)를 통해 간단히 살펴봤듯이, *наверно* 유형의 삽입어들은 꽤 일관되게 가설추론증거성의 표지로, *кажется* 유형의 삽입어들은 사실추론증거성의 표지로 사용되는데, 여기에는 Sweetser(1990)가 문법화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제시했던 이른바 ‘어원적 원형성’의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кажется*는 주지하다시피 동사 *казаться*(-처럼 보인다)의 3인칭 단수현재형이 양상삽입어로 문법화된 형태로, 애초의 어원적 기원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경험적 시각성의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반면, *наверно*는 그러한 직접적 지각의 의미적 원형성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믿음(вера)

에 근거한(на) 판단’이라는 가설추론의 어원적 원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예컨대, 다음과 같은 예문에 казалось가 사용된 것도 전달자인 마부가 Дуня의 표정 등을 본다는지 하여 어느 정도는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경험한 사실에 바탕을 두고, 그녀가 자신의 의향에 의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추론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물론 이 казалось는 아직 삽입어로 완전히 문법화가 진행된 형태는 아니지만, 문법화의 과정에서 애초의 어원적, 원형적 의미가 해당 어휘의 용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제시하였다).⁹⁾

(13) Ямщик, который вёз его, сказывал, что всю дорогу Дуня плакала, хотя казалось, ехала по своей охоте.¹⁰⁾

“그를 데려다줬던 마부가 Дуня가 비록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가는 길 내내 울었다고 이야기해줬대.” (А.С. Пушкин, “Станционный смотритель”)

사실 이러한 용례는 그 어원에 see라는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seem의 다음과 같은 용례와도 비교될 만하다.

(14) It was, Celia thought, a very nice horse. Its name seemed to be Aniseed, which Celia thought a very queer name for a horse to have.

“Celia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매우 훌륭한 말이었다. 말의 이름은 Aniseed였던 것 같은데, Celia는 그것이 말의 이름으로는 꽤 기이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Christie, “Unfinished Portrait”)

Варламова(1999: 202)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위의 예문에서 화자는 단

9) 참고로 지적하자면, 삽입어구처럼 사용되고 있는 이 예문 (13)의 казалось는 당연히 “Он казался им старым и провинциальным”와 같은 발화의 казался보다는 문법화가 훨씬 더 진행된 형태라 할 수 있다.
10) 물론 여기에 같이 사용된 сказывал은 говорить나 сказать와는 다소 달리 ‘전달’의 의미를 강조하는, 또 다른 유형의 인용증거성 표지이다.

지 어떤 가능한 가설이나 추정을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묘사되는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무언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다. 다시 말해, 어느 정도는 묘사되는 상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를 추론해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언급하자면, 위의 예문 (11)에 사실추론증거성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는 *похоже* 역시 어원적으로 ‘보다’라는 의미소를 담지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럼 이제 문법화가 충분히 더 진행된 삽입어 *кажется*의 용례를 살펴보자. 아래의 예들에서도 보이듯이, 지금까지 살펴본 애초의 어휘 의미의 어원적 원형성은 *кажется*의 용례에도 그대로 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наверно* 유형의 삽입어들과의 용법상의 차이를 결정하는 주된 기준이 되기도 한다.

(15) A: Анна Сергеевна, мне кажется, я вчера видела вас в нашем институте. Это правда?

B: Да, вчера утверждали тему моей доктор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A: Анна Сергеевна, 제가 어제 당신을 우리 연구소에 봤던 것 같은데. 맞지요?

B: 네, 어제 제 박사학위논문 тема 발표를 했었어요.

위의 예문 (15)에서 *кажется*는 화자 A가 나름의 지각적 경험(여기서는 청자 B를 본 것 같은 느낌)을 바탕으로 청자 B가 자신의 연구소에 왔었다는 사실을 추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화자 A가 어제 무언가 B를 닮은 사람을 자기 연구소에서 본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즉, 평소에는 B가 A의 연구소에 나타날 일이 별로 없어서 과연 어제 봤던 사람이 B가 맞는지 자신이 없었는데, 이러한 화자 A의 사실추론증거성적(inferentive) 판단이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담화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에 사용된 *кажется* 역시 과거에 경험을 기억해내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кажется*의 사용과 관련해 특히 이 예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화자의 사실추론증거성적 판단이 잘못된 기억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 여자를 두고 벌였던 사랑싸움에서 승자는

‘나’가 아니라, ‘그’였다는 것인데(이 작품 후반에 사실은 이 여자가 ‘그’와 결혼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어쨌든 여기에서 *кажется*는 기억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직접적 경험의 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16) И чёрт его знает почему. Как-то не везёт ему всю жизнь. Помню, мы как-то ухаживали за одной девочкой, он и я. Это целая история. В конечном счёте я, кажется, победил.

“이유를 누가 알겠어. 웬지 그는 일생 내내 일이 잘 안 풀렸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한 여자애를 쫓아다니게 됐지, 개와 내가 말이야. 이걸 정말이지 긴 이야기야. 결국에는 내가 이겼던 것 같애.” (“Встреча”, 김군선 2004: 164에서 재인용)

아래의 예문에서도, *кажется*의 사용을 통해 기억이라는 다소 직접적인 시각경험에 바탕을 둔 추론이라는 측면이 표현되고 있다.

(17) Я уже хотел несолоно хлебавши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сад, как вдруг увидел – за углом, на трамвайной остановке – защитную командирскую фуражку с синим кавалерийским околышем. Кажется, ещё никогда в жизни я так не радовался, как обрадовался в эту минуту.

“내가 막 헛수고인 채로 돌아가려했던 순간에 갑자기 저편 구석 전차 정류장에서 하늘색의 기병대 띠가 있는 국방색의 지휘관 모자를 쓰고 있는 장교를 한 명 발견했다. 내 인생에서 이때만큼 기뻐했던 때는 여태까지 없었던 것 같다.” (“Честное слово”, 김군선 2004: 197-198에서 재인용)

반면에, 어원적 원형성의 측면에서 ‘믿음에 근거한 판단이나 추론’이라는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навечно*는 위와는 전혀 다른 용례를 보인다. 이를테면, *навечно*가 사용된 다음의 발화에서 화자는 예고편을 본다는지 하여 영화내용의 일부를 어느 정도 ‘맛보고’ 영화가 꽤 괜찮은 것 같다고 추론·판단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묘사되고 있는 상황과 어느 정도의 직접적 접촉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전히 화자 자신이 평소 견지하고 있는 자신의

신념·논리체계의 바탕 하에, 화자가 알고 있는 이런저런 배우들과 감독이라면 훌륭한 영화가 나올 것이라는 추론을 하고 있다.

(18) **Наверно**, фильм очень хороший; прекрасный актерский состав, замечательный режиссер.

“이 영화 꽤 훌륭한 거야; 배우구성도 매우 좋고, 감독도 뛰어나니”

(Булыгина & Шмелёв 1992: 133)

위와 같은 맥락에 직접적 지각의 원형적 의미소를 가지고 있는 *кажется* 를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Яковлева(1994: 222)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예들은 위와 같은 용법상의 차이를 더욱 잘 드러내준다.

(19) Такой Луна, **кажется**, была месяц (год) назад. ‘한 달 (일 년) 전에도 달이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애’

(20) Такой она [Луна] была, **наверное**, и тысячу и сто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달은 천 년 전에도 그리고 십만 년 전에도 그런 모양이었을 거야’

즉, 예문 (19)에는 ‘시각성’과 같은, 직접적 접촉에 의한 경험의 계기가 작용하고 있는 반면, (20)에는 그러한 계기가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에, 각각 *кажется*와 *наверно* 유형의 삽입어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예문 (20)의 경우에는 화자가 천 년 전, 수십만 년 전의 달을 직접 볼 수는 없을 터이므로, ‘그렇게 오래 전에도 달빛이 그랬을 거야’라고 판단하는 가설추론 증거성(presumptive)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наверно* 유형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Яковлева(1994: 223)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마법적 상황에서는 -이러면, “파우스트”의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은 화자는- 다음과 같이 *кажется*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21) Такой Луна была, **кажется**, и тысячу и сто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달은 천 년 전에도 그리고 십만 년 전에도 그런 모양이었던 것 같애’

아래의 예 역시 *наверно* 유형의 삽입어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B가 A에게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해주었는데도, A 스스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A가 해당 사실을 전해 듣고도 잊어버린 탓이라는 가설추론(presumptive)의 논리적 귀결이 되기 때문이다.

(22) A: Почему вы не сказали мне об этом?

B: Я вам говорил, но вы, **наверное**, забыли.

A: 당신 왜 이것에 대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B: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5. 인식양상 (→ 추론증거성) → 인용증거성

지금까지는 인식양상의 표지가 추론증거성의 표지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봤지만, 간접증거성의 표지들에서 보이는 위와 같은 기능변이는 사실 매우 활발해, 인식양상의 표지가 인용증거성의 표지로도 기능하게 되는 경우 역시 (혹은 추론증거성의 표지를 거쳐 인용증거성의 표지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 역시) 자주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여러 언어들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은 유형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кажется*의 용례로, 이 삽입어는 ‘인식양상 → 추론증거성 → 인용증거성’과 같은 기능변이의 여정을 보여준다. 사실 인용증거성의 표현과 관련된 *кажется*의 기능은 비교적 최근에야 지적된 것으로(Булыгина & Шмелёв 1992), 이는 주어진 어휘소-문법소가 꾸준히, 그리고 ‘늘 상시적으로, 현재에도’ 새로운 문법적 기능을 획득하고 있다는 현대문법화이론(Traugott 1995 등)의 가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이를테면, Булыгина & Шмелёв(1992: 133; 1993: 80-81)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아래의 예들에 사용된 *кажется*는 화용적 맥락에 따라서는 추론증거성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얻었다는 인용증거성의 의미도 표현할 수 있다.

(23) **Кажется**, ты собираешься во Францию?... ‘너 프랑스에 가려고 한다지(아마)?...’

(24) **Кажется**, Иван уехал в Киев... ‘이반이 키예프로 떠났다는 것 같애...’

(25) Фильм, **кажется**, очень хороший. ‘이 영화 꽤 좋다는 것 같애’

사실 이처럼 인식양상의 표지가 추론증거성을 거쳐 인용증거성까지 표현하게 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이를테면, Иванов(2000)가 지적하듯이, 네델란드어 양상동사 *moeten*(영어의 'must'에 해당)은 자신의 발화가 타인의 발화나 생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즉, 타인의 발화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다.

(26) Het moet een goede film zijn.

it must a good film be

‘그거 좋은 영화임에 틀림없대’; ‘그거 좋은 영화래’

네델란드어와 마찬가지로 고지독일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독일어 역시 유사한 용법을 보이는데, Плуниан(2000: 323)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아래의 양상동사 *sollen*(영어의 'must'나 'should'에 해당) 역시 인용증거성의 뉘앙스를 전달한다.

(27) Er soll krank sein.

he must sick be

‘говорят, он болен’; ‘개 아프대(아프다는 것 같애)’

사실 독일어 양상동사 *sollen*(-해야 한다), *wollen*(-하기를 원하다)은 꽤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용증거성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Ханзен(2007)이 잘 지적한 바 있다. Ханзен(2007: 246-247)이 지적하듯이, 독일어의 모든 양상동사들은 나름의 과거시제 패러다임에 따라 활용하며, 소

사 *zu*가 없는 부정사와 결합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양상동사들은 인접한 인식양상의 기능장에서 사용되는 반면, *sollen*, *wollen*는 증거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날 뿐이다. Ханзен은 이처럼 양상동사의 한 그룹은 인식적 의미를, 다른 그룹은 증거성적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에서 이 두 범주가 서로서로 접합되어 있을 거라는 입장을 유도해낸다.

물론 독일어의 모든 양상동사들의 일차적인 의미는 양상범주에 관계하는 까닭에, *sollen*의 기본의미는 타자의 의지의 전달에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부정사 I 유형과 결합해서 사용된다.

(28) Peter soll kommen.¹¹⁾ ‘피터 와야 하는데...(누군가 피터가 오기를 원한다)’

하지만 독일어에서 모든 양상동사들은 ‘*gekommen sein*’ 형태와 같은 부정사 II 유형과도 결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아래의 예문 (29)처럼 대다수 동사들은 인식양상적 의미가 우세하지만, *sollen*과 *wollen*은 예문 (30)처럼 증거성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29) Peter **mag** gearbeitet haben ‘Пётр, может быть, работал’

(30) Peter **soll** gearbeitet haben ‘Пётр, говорят, работал’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독일어 *sollen*은 부정사 II와 결합해, 화자에 의해 전달되는 정보가 누군가 다른 인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인용증거성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러한 구문의 의미구조는 Ханзен(2007)이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31) X soll ge-V-en sein/haben.

‘Z сообщил говорящему о том, что X V-л’

11) 사실 *sollen*의 이러한 용례는 영어의 *shall*이 2-3인칭 발화에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점에 비견될 수 있다: cf. ‘You shall die’ ≈ ‘I will kill you’

그런 까닭에, 부정사 I 유형과 결합된 위의 예문 (28)도 다음과 같이 부정사 II 유형과 함께 사용될 시에는 인용증거성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32) Peter soll gekommen sein.

'Говорят, что Пётр пришёл'

다만 *sollen*이 몇몇 동사들(특히 연사 *sein*의 경우)과 함께 사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부정사 I 유형과 결합해서도 증거성 의미가 생겨날 수 있으며, Плу́нгиан(2000)이 제시한 위의 예문 (27) 역시 바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해 인용증거성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33) Peter **soll** ein schlauer Kopf **sein**.

'Говорят. Пётр умница'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어 인용증거성의 소사 *мол*이 이른바 신문-사회평론적 문체에서 활발히 사용되듯이(이에 대해서는 홍택규(2009)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다), *sollen*의 인용증거성적 용법 역시 독일어의 신문-사회평론적 문체에서 꽤 자주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회평론적 문체가 인용증거성적 의미를 활성화시키는, 또 유사한 방향의 문법화를 유도하는 주된 레지스터 중의 하나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는 인용증거성 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깊게 해주리라 기대된다.

사실 그간 독일어 *wollen*의 증거성 관련 기능은 그다지 잘 지적되지 않았었지만, Ханзен(2007: 249)은 *wollen* 역시 다음과 같이 부정사 II 유형과 결합되어 사용될 시에는 인용증거성의 의미가 우세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34) Peter **will** in Regensburg **gewesen sein**.

'Пётр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он был в Регенсбурге'

위와 같은 유형의 구문의 의미는 Ханзен(2007)의 제안대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wollen*만의 독특한 뉘앙스는 X가 정말로 V를 했다는 것을 X 스스로 화자가 믿었으면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내용을 함축한다는 데 있다.

(35) X will ge-V-en sein/haben.
'X сообщает/сообщил о том, что он V-л'

다시 말해, 위의 예문 (34)는 다음과 같은 뉘앙스의 한국어 문장으로 이해될 수 있다.

(36) ('잘 믿겨지지 않지만') 피터(가) 레겐스부르크에 갔었다. ('본인 말이...')¹²⁾

결국 *sollen*이 보다 중립적으로 정보의 출처를 표시한다면, *wollen*은 행위자 본인(여기서는 X)이 전달한 내용의 진위성에 대해 정작 화자 자신은 강한 의심을 품고 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 역시 유사한 뉘앙스를 전달한다.

(37) Der Angeklagte **will** den Zeugen noch nie **gesehen haben**.
'Подсудимый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икогда не видел свидетеля'

위와 같은 예들은 -л- 분사와 бил이 함께 사용된, 불가리아어 예문 (4)에서 볼 수 있는 의심서법(dubitative)과 유사한 사례로, 이 역시 한 언어표지 내에 인식양상과 간접증거성이 함께 병존할 수 있다는 인지적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예시라 할 수 있다.¹³⁾

12) 한국어 {-었다-}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같은 유형의 의심서법(dubitative)의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는데, 이 역시 증거성 연구와 관련해 흥미로운 대목이라 할 수 있다.

13) 물론 이러한 의심서법 의미의 표현은 러시아어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이를테면,

반면에 *wollen*이 다음과 같이 부정사 I 유형과 결합될 시에는 화자의 바람이라는 본래의 양상적 의미를 전달함은 물론이다.

(38) Peter will nach Regensburg kommen.

'Pётр хочет приехать в Регенсбург'

지금까지 독일어 양상조동사를 중심으로 ‘인식양상 → 인용증거성’의 기능변이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위와 같은 기능변이는 (독일어 *sollen*, *wollen*의 경우만큼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양상조동사의 사례로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특정화된(specialized) 증거성 표지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영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향의 기능변이는 살펴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Варламова(1999: 202)가 제시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동사 *seem*의 용례이다.

(39) “Wait, you’ll meet Constantine Demiris”, Larry said. “He’s like a goddam King. All the moguls in Europe seem to spend their time figuring out what they can do to please him”

“잠깐, 너는 콘스탄틴 데미리스를 만나게 될 거야”, 래리는 말했다. “그는 마치 무슨 대단하기라도 하는 왕 같애. 유럽에 있는 모든 모굴인들은 그를 기쁘게 하는 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Sheldon, “The other side of Midnight”)

Варламова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타인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화용적 맥락에 따라서는 *seem*과 같이 불확신성을 표현하는 표지를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이러한 용례들은 일차적으로 인식양상성과 연관되어 있는 *seem*이 인용증거성의 영역까지 커버하게 되는 과정을 예증적으로 잘 보여

홍택규(2009)에서도 간단히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으로는 인식양상의 의미적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якобы*나 *будто*의 경우처럼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음을 신호하는 사례들도 있다: “Говорит, якобы/будто не знала этого. ‘(그녀가) 마치 이걸 몰랐다는 것처럼 말하는군’”

준다. 사실 한동안 우리말 연구자들에 의해 언어적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었던 {-하는 것 같아(요)}와 같은 구문 역시 단지 화자의 확신의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위의 *seem*의 용례처럼 해당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들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때도 많다. 참고로, *seem*이 추론증거성의 용례로 사용되는 예는 위의 예문 (14)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 있다.

6. 마치며

지금까지 이른바 ‘의미적 가치의 층위’와 ‘언어적 표지의 층위’를 방법론적으로 구분하여, 간접증거성과 인식양상 범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인식양상의 표지로 이해되던 *кажется, наверно, похоже, видимо, может быть* 등의 삽입어들이 문법화적 기능변이의 과정을 통해 추론증거성과 인용증거성의 의미적 가치들도 표현할 수 있게 됨도 살펴보았다. 이처럼 인식양상과 간접증거성은 서로 독립된 별도의 의미범주임에도, 매우 친화적인 기능적 벡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는 무엇보다 일차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증거성이 표현되는 지형도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더 나아가 문법화적 기능변이와도 관련해 어떤 일반적인 경향을 추출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테면, 홍택규(2009)에서 주로 다뤄졌던 *мол, дескать, грит* 등과 같은 특정화된 표지들은 문법화가 더 진행된 단계를 반영해 형태-통사적 축약을 활발히 겪을 뿐만 아니라, 품사기능의 측면에서도 증거성을 신호하는 기능이 더욱 안정화된 소사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다뤄졌던 *кажется, наверно, похоже, должно быть* 등과 같은 비특정화된 표지들은 범주상 부사와 양상삽입어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증거성과 관련된 기능들이 아직 안정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양상어 문법화의 범언어적 경향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를테면, Sweetser(1990)가 제안했던 ‘어

근의 어원적 의미 → 양상적 의미 → 대면적(interpersonal) 의미'라는 양상어의 범언어적 기능변화의 방향에 대해, '어근의 어원적 의미 → 인식양상 → 추론증거성(/인용증거성) → 인용증거성'과 같은 기능변화의 방향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김군선, 『증급러시아어. 문법의 심화와 고급문장의 독해 上』, 범한서적주식회사, 2004.
- 홍택규, “증거성과 동사범주의 주관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28, 155-190, 2008.
- 홍택규, “인용증거성과 ‘타자의 말’: *мол, де, дескать, грим* 등의 어휘적 표지를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1/1, 73-105, 2009.
- 홍택규, “‘구세계 증거성 벨트’와 발칸언어연합: 연구를 위한 시론”, 『노어노문학』 22/4, 189-217, 2010.
- БУЛЬГИНА, Т. В. & ШМЕЛЁВ А. Д., “Модальность”, *Человеческий фактор в языке. Коммуникация, модальность, дейксис*. М.: Наука, 110-153, 1992.
- БУЛЬГИНА, Т. В. & ШМЕЛЁВ А. Д., “Гипотеза как мыслительный и речевой акт”, *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языка. Мент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М.: Наука, 78-82, 1993.
- ВАРЛАМОВА, М. П., “Показатели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в английском тексте”, *Текст как объект изучения и обучения*, Псков, 200-203, 1999.
- ИВАНОВ, Д. “Одна категория или две?: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и эпистемическая модальность”, *Диалог 2000*.
- КОЗИНЦЕВА, Н. А., “Категория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и (проблемы типолог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Вопросы языкознания*, 3, 92-104, 1994.
- МЕЛЬЧУК, И. А., *Курс общей морфологии. Т. II*, М., 1998.
- НИЦОЛОВА, Р., “Семантическая гиперкатегория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говорящим

- сообща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её связь с временем и лицом глагола",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категории: иерархии, связ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СПб., 2003
- ПЛУНГЯН, В. А. *Общая морфология. Введение в проблематику.* М., 2000.
- ХАНЗЕН, Бьёрн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в немецком языке",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в языках Европы и Азии*, Наука., 241-252, 2007.
- ХОНГ, Т.-Г., "К вопросу о знач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глагольного суффикса -te-",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теории грамматики.* 3, М., 2004.
- ХРАКОВСКИЙ, В. С.,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ь, эпистемическая модальность, (ад)миративность", *Эвиденциальность в языках Европы и Азии*, Наука, 2007.
- ЯКОВЛЕВА, Е. С., "Согласование модусных характеристик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агматика и проблемы интенциональности.* М., 1988.
- ЯКОВЛЕВА, Е. С., *Фрагменты русской языковой картины мира (модели пространства, времени и восприятия)* М.: <Язык. Семиотика. Культура>, 1994.
- FRIEDMAN, V. A., "Evidentiality in the Balkans: Bulgarian, Macedonian and Albanian", *Evidentiality: The Linguistic Coding of Epistemology*, 168-187, 1986.
- FRIEDMAN, V. A., *Turkish in Macedonia and Beyond. Studies in Contact, Typology and other Phenomena in the Balkans and the Caucasus*, Harrassowitz Verlag, 2003.
- GIVON, T., "Evidentiality and Epistemic Space", *Studies in Language* 6/1, 1982.
- HAAN de F., "Encoding Speaker Perspective: Evidentials", *Linguistic Diversity and Language Theories*, Amsterdam, 2005.
- JAKOBSON, R.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Roman Jakobson. Selected Writings. Vol. 2. Word and Language.* The Hague, 130-147, 1957/1971.
- КЕЧАЙОВ Р., "Typology of Grammaticalized Evidentiality in Bulgarian and Estonian", *Linguistica Uralica* 38/2, 126-144, 2002.
- PLUNGIAN, V., "The Place of Evidentiality within Universal Grammatic Space." *Journal of Pragmatics* 33: 349-357, 2001.

- SWEETSER, E.,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TRAUGOTT, E. C.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sation”. *Subjectivity and Subjectivisation. Linguistic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ABSTRACT

Indirect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With Reference to Functional Variation

Hong Taek-Gyu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xplain categorial correlations between indirect evidentiality and epistemic modality on the basis of semantic, pragmatic usages of Russian so-called non-specialized lexical markers of evidentiality, such as *kazhetsja*, *naverno*, *vidimo*, *poxozhe*, *dolzno byt'* etc.

To do this, firstly I concentrated on the parameter of internal functional variation of a given parenthetical word. Secondly, I approached this topic from a typological perspective. Thirdly, I accepted Sweetser(1990)'s methodological assumption that etymological prototype of a given word plays a great role in grammatical, semantic, pragmatic changes.

As a result, I could postulate general tendencies of grammaticalizations (or semantic, pragmatic, functional changes) in the direction from epistemic modality to indirect evidentiality, which consists of inferentives, presumptives, and quotatives. For example, such a parenthetical word as *kazhetsja* can function not only as a marker of epistemic modality of uncertainty, but also as inferentives. Besides, it is very interesting that this word lately has started to function as quotatives, too. This kind of functional variations are very characteristic in these spheres.

Key Words

간접증거성, 인식양상, 기능변이, 어휘적 표지, 언어유형론

Indirect Evidentiality, Epistemic Modality, Functional Variation, Lexical Markers, Linguistic Typology

논문접수일: 2011. 10. 22.

심사완료일: 2011. 12. 02

게재확정일: 2011. 12. 09.